

#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 Children's emotionality and behavior problems depending on their institutionalization

성미영\*\*

서경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아동학과

Sung, Miyoung

Dep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both institutionalized and home-reared, depending on their sex, age, and entry to institution. The subjects included 621 children (274 institutionalized, 347 home-reared; 298 boys and 323 girls; 209 preschoolers, 223 first to third graders, 189 fourth to sixth).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with t-test, 3-way ANOVA,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hildren's emotionality had two sides: Positive (happiness) and negative (sadness, anger, and fear). Measures of behavior problems included internalization (anxiety, immaturity, withdrawal, physical symptom) and externalization (hyperactivity, ag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institutionalized were higher in negative emotionality than their counterparts, whereas the home-reared higher in positive emotionality. The institutionalized children also had higher externalizing problems than the home-reared. Furthermore,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hile their positive emotionality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Key Words : institutionalized children, emotionality, behavior problems

### I. 서론

일상생활에서 낯설고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아동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하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아동도 있는 반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아동도 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아동의 기질과 관련된 부분에 기인하는데, 기질의 정서적 측면에 해당하는 정서성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유아의 대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의 정서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권연희, 박경자, 2003; Ackerman et al., 1999; Fabes et al., 1999; Rothbart et al., 1994), 그리고 유아의 행동 억제와의 관련성(박성연, 1998; 박성연, 박성연, 2001)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예컨대, 아동의 부

정적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본 Rothbart와 동료들(1994)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성의 경우 공격성이나 죄의식 등과 정적인 관련을 보이고,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abes와 동료들(1999)은 부정적 정서성의 경험이 일상적 또래관계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높은 반면, 공격적 행동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rsenio et al., 2000). 이처럼 아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성이 사회적 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정서성 발달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가족해체 경험 등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부정적 정서의 경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차이 여부를 확

\* 이 연구는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1-C00424).

\*\* Corresponding author: Miyoung Sung  
Tel: (02) 940-7554, Fax: (02) 940-7554  
E-mail: minie@skuniv.ac.kr

인하고자 한다.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시설보호 아동이 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뒤떨어진다는 결과와 더불어, 시설보호 아동 및 청소년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며,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시설보호 아동의 언어적 이해 수준이 표준 점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언어 이해력으로 인해 행동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강이 외, 2002). 또한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가족관계망의 부재에 따른 행동문제의 발생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순형 외, 2001). 즉 생존해 있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의 시설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가 생존해 있는 유아가 생존해 있지 않은 유아에 비해 행동문제 점수가 더 높았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기술의 측면에서도 시설보호 아동은 협동, 자기 주장, 자아 통제 점수 수준이 낮았으며,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는 정서 조망 능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세은, 이순형, 2002). 시설보호 유아의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의 사용을 일반 유아와 비교한 결과(이강이, 성미영, 2003), 시설보호 유아가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강제적 전략의 비율이 일반 유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와의 갈등이라는 사건에서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는 동거 형제 유무와 부모 생존 여부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의 경우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통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서지식, 대인간 문제 해결력 등의 발달 영역에서 시설보호 아동의 발달 수준이 일반가정 아동의 발달 수준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불안, 위축, 공격성 등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서도 시설보호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를 일반가정 아동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일부 연구들(성미영 외, 2001; 이순형 외, 2000)에 의하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시설보호 아동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생활 영역 중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나, 또래관계의 경우에는 일반아동에 비해 적

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미영 외, 2001). 즉, 시설보호 아동은 학교 친구집에 놀러가는 경우가 적고, 학교 친구들과 사이에서 별로 인기가 좋지 않으며, 장기자랑 시간에 잘 참가하지 않는다. 또한 시설보호 아동은 부모가 없고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편견으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위축을 경험한다(이종원, 1988). 이와 더불어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 위축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았다(이순형 외, 2000). 이를 통해 볼 때,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 따르면 시설보호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이들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설보호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행동을 불안, 위축, 공격성, 과잉행동 등의 내면적, 외현적 행동문제를 중심으로 일반가정 아동과 비교해 봄으로써 이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가족해체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발달적 관점의 연구들이 일부 수행되었다.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서발달 중 정서지식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이강이, 성미영, 2003)에 의하면,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지식 수준이 일반 아동에 비해 뒤떨어짐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서지식은 정서발달에 대한 인지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정서성은 기질의 하위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기질적 특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정서지식이나 사건지식의 발달과 같이 논리적 상황 판단에 관련된 사회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아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정서 상태에 해당하는 정서성 역시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질의 정서적 측면에 해당하는 정서성의 차이는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보이는 다양한 적응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행동문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요인의 하나로 판단되는 정서성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최근들어 더 집중되고 있다. 아동의 정서성과 행동문제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높은 반면, 공격적 행동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Arsenio et al., 2000) 보고되었다. 이처럼 아동의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일부 수행되었으나, 주로 일반 아동만을 대상으로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뿐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수

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아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등의 대상연령을 한정하여 연령적 차이에 따른 변화 경향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미취학 유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서성 특성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시설보호 여부, 성별, 연령에 따라 미취학 유아 및 초등학교 아동들이 보이는 정서발달 중 특히 정서성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시설보호 여부, 성별, 연령에 따른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아동의 정서성과 행동문제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사회정서발달에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정서성은 시설보호 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행동문제는 시설보호 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아동의 정서성과 행동문제는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 아동의 정서성과 행동문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소재 9개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274명의 시설보호 아동과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아동 347명, 총 621명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령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만 3-5세 미취학 유아 209명,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아동 223명,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아동 18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별 구성은 남아가 298명, 여아가 323명이었으며,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입소기간 1년 이하가 116명, 2-4년이 94명, 5년 이상인 아동이 61명, 무응답이 3명이었다. 입소사유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명,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해 입소한 아동은 122명,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소한 아동은 65명, 그리고 기타(부모의 질병, 가출, 복역 등)의 경우가 61명이었다.

### 2. 연구도구

#### 1) 아동의 정서성 측정

아동의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 Ahadi와 Hershey(1994)가 개발한 아동행동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s: CBQ)를 사용하였다. CBQ의 하위영역 중 정서성 관련 문항을 연구대상 연령과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정서성 검사도구를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의 정서성 발달 영역은 크게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으로 구분되는데, 긍정적 정서성(예,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웃는다)은 기쁨의 정서 상태를 의미하고, 부정적 정서성(예, 하던 일이 안 풀리면 실망한다)은 분노/좌절, 두려움, 슬픔의 정서 상태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기쁨(예, 재미있는 이야기나 농담을 하면 크게 웃는다)은 긍정적 정서성에 해당하고, 슬픔(예, 하던 일이 잘 안 풀리면 몹시 실망한다), 두려움(예,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 분노(예,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면 화를 낸다)는 부정적 정서성에 해당한다. 각각의 영역은 6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아동의 정서성 검사는 아동의 어머니(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담당보육사)가 정서성 검사 질문지를 작성함으로써 측정되었다. 정서성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전체 정서성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81로 나타났다.

#### 2) 아동의 행동문제 측정

연구대상 아동의 행동문제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 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CBCL은 원래 총 1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연구결과(한미현, 유안진, 1995)에 의하면 한국 아동에게 부적합한 문항들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시켰다. 또한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사가 다수의 아동을 평가해야 하고 연구대상 아동이 미취학 유아 및 초등학생이므로 해당 연령에 적합한 문항을 중심으로 선정하여(성미영 외, 2001) 총 36 문항을 사용하였다.

행동문제 검사도구의 문항들은 크게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내면화 행동문제에는 불안, 미성숙, 위축, 신체증상의 하위영역이 포함되며, 과잉 및 공격행동은 외현화 행동문제에 포함된다. 하위영역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먼저 내면화 행동

문제의 경우 불안행동은 '걱정이 많고 무서움을 탄다', 미성숙행동은 '자기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한다', 위축행동으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신체증상으로는 '피곤해한다' 등이다. 다음으로 외현화 행동문제에서는 과잉행동의 경우 '차분히 앉아 있지 못하고 부산하다', 공격행동으로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친다'와 같은 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0점(그렇지 않다), 1점(그런 편이다), 2점(매우 그렇다)의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행동문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전체 행동문제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94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통계처리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성과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2005년 3월 첫째주 및 둘째 주에 조사원이 조사대상 보육원을 방문하여 보육사가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보육사별로 담당하는 아동의 인원수에 맞추어 질문지를 배부하고, 질문지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1주일 뒤 조사원이 다시 보육원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2005년 3월 셋째주 및 넷째주에 조사원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아동의 부모가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질문지 배부 1주일 뒤 조사원이 다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프로그램에 의해 통계처리되었으며, 통계기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t-검증,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 삼원변량분석, Scheffe검증이 이용되었다.

## III. 연구결과

### 1. 시설보호 여부, 성별, 연령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시설보호 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아동의 정서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정서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정서성의 경우 시설보호 여부와 연령에 따라 아동의 긍정적 정서성 즉, 기쁨에 대한 정서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의 긍정적(기쁨) 정서성 점수( $M=26.80$ ,  $SD=5.49$ )가 시설보호 아동의 긍정적 정서성 점수( $M=25.54$ ,  $SD=5.37$ )

보다 더 높았으며( $F=21.785$ ,  $p<.001$ ), 미취학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 점수( $M=27.27$ ,  $SD=5.15$ )가 초등학교 저학년 및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긍정적 정서성 점수( $M=25.29$ ,  $SD=5.51$ ;  $M=24.79$ ,  $SD=5.72$ )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F=7.078$ ,  $p<.01$ ).

다음으로 부정적 정서성의 경우 시설보호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시설보호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점수( $M=46.44$ ,  $SD=15.96$ )가 일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점수( $M=37.88$ ,  $SD=12.81$ )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F=58.031$ ,  $p<.001$ ). 부정적 정서성의 하위영역 중 슬픔의 경우에는 시설보호 여부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슬픔에 대한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성 점수( $M=14.84$ ,  $SD=5.66$ )가 일반 아동( $M=12.08$ ,  $SD=4.54$ )에 비해 더 높았으며( $F=42.243$ ,  $p<.001$ ), 여아의 점수( $M=13.76$ ,  $SD=5.46$ )가 남아( $M=12.79$ ,  $SD=4.95$ )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6.201$ ,  $p>.05$ ). 부정적 정서성의 하위영역 중 두려움의 경우에는 시설보호 여부,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두려움에 대한 시설 보호 아동의 정서성 점수( $M=15.55$ ,  $SD=7.42$ )가 일반 아동의 점수( $M=13.27$ ,  $SD=6.21$ ) 보다( $F=24.285$ ,  $p<.001$ ), 여아의 점수( $M=15.39$ ,  $SD=6.76$ )가 남아의 점수( $M=13.06$ ,  $SD=6.77$ ) 보다( $F=15.672$ ,  $p<.001$ ), 그리고 미취학 유아의 점수( $M=15.09$ ,  $SD=7.18$ )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점수( $M=13.02$ ,  $SD=6.56$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0.085$ ,  $p<.001$ ). 부정적 정서성의 하위영역 중 분노의 경우, 시설보호 여부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분노에 대한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성 점수( $M=16.05$ ,  $SD=6.91$ )가 일반 아동( $M=12.53$ ,  $SD=5.71$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F=47.471$ ,  $p<.001$ ), 남아의 점수( $M=14.72$ ,  $SD=6.50$ )가 여아의 점수( $M=13.50$ ,  $SD=6.46$ )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F=7.271$ ,  $p<.01$ ).

한편,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경우 시설보호 여부와 성별, 성별과 연령간에, 두려움의 경우 시설보호 여부와 성별, 시설보호 여부와 연령, 성별과 연령간에, 그리고 분노의 경우 시설보호 여부와 성별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수들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t 검증과 F 검증을 통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표 3> 참조), 부정적 정서성에서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성차가 나타났으나( $t=-3.264$ ,  $p<.01$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성차가 나타났으나( $t=-2.113$ ,  $p<.05$ ) 미취학 유아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려움에 대한 정서성에서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성차

〈표 1〉 아동의 정서성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시설 보호 여부	성별	연령	N	정서성				
				긍정	부정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전체
				M(SD)	M(SD)	M(SD)	M(SD)	M(SD)
시설 보호 아동	남아	미취학	31	24.58(6.26)	14.29(6.14)	19.48(8.15)	18.35(6.93)	52.13(18.09)
		초등저	62	24.44(5.73)	14.89(5.21)	13.94(5.99)	16.71(6.88)	45.53(14.60)
		초등고	40	22.70(5.23)	14.80(4.17)	12.55(6.25)	17.33(6.47)	44.68(12.46)
		전체	133	23.95(5.73)	14.72(5.13)	14.81(7.09)	17.28(6.75)	46.81(15.08)
	여아	미취학	36	26.08(4.97)	13.47(8.16)	16.89(8.64)	14.89(7.86)	45.25(21.48)
		초등저	57	24.93(4.36)	15.14(5.41)	17.35(7.11)	15.39(6.57)	47.88(15.17)
		초등고	48	24.56(5.58)	15.83(5.02)	14.44(7.39)	14.33(6.54)	44.60(14.65)
		전체	141	25.10(4.96)	14.95(6.14)	16.24(7.67)	14.90(6.88)	46.09(16.78)
	전체	미취학	67	25.39(5.61)	13.85(7.25)	18.09(8.45)	16.49(7.59)	48.43(20.14)
		초등저	119	24.67(5.10)	15.01(5.28)	15.57(6.74)	16.08(6.74)	46.66(14.86)
		초등고	88	23.72(5.47)	15.36(4.66)	13.58(6.92)	15.69(6.64)	44.64(13.62)
		전체	274	24.54(5.37)	14.84(5.66)	15.55(7.42)	16.05(6.91)	46.44(15.96)
일반 아동	남아	미취학	70	28.03(5.36)	11.54(4.17)	12.97(5.98)	12.31(5.32)	36.83(11.19)
		초등저	52	26.65(5.32)	11.37(4.30)	10.98(6.17)	13.25(6.05)	35.60(12.97)
		초등고	43	25.65(4.77)	10.56(4.21)	10.33(6.23)	12.53(5.12)	33.42(11.61)
		전체	165	26.98(5.26)	11.23(4.21)	11.65(6.18)	12.67(5.49)	35.55(11.89)
	여아	미취학	72	28.28(3.94)	12.24(4.51)	14.36(6.02)	11.51(5.78)	38.11(13.31)
		초등저	52	25.35(6.36)	13.00(4.99)	15.87(5.83)	13.27(5.91)	42.13(13.33)
		초등고	58	25.79(6.50)	13.47(4.64)	14.17(5.73)	12.74(6.04)	40.38(13.05)
		전체	182	26.65(5.71)	12.85(4.70)	14.73(5.89)	12.41(5.92)	39.98(13.27)
	전체	미취학	142	28.15(4.68)	11.89(4.34)	13.68(6.02)	11.91(5.56)	37.48(12.28)
		초등저	104	26.00(5.88)	12.18(4.70)	13.42(6.46)	13.26(5.95)	38.87(13.49)
		초등고	101	25.73(5.80)	12.23(4.67)	12.53(6.22)	12.65(5.64)	37.42(12.87)
		전체	347	26.80(5.49)	12.08(4.54)	13.27(6.21)	12.53(5.71)	37.88(12.81)
전체	남아	미취학	101	26.97(5.84)	12.39(4.99)	14.97(7.33)	14.17(6.46)	41.52(15.33)
		초등저	114	25.45(5.63)	13.28(5.11)	12.59(6.22)	15.13(6.71)	41.00(14.68)
		초등고	83	24.23(5.18)	12.60(4.68)	11.40(6.30)	14.84(6.26)	38.84(13.23)
		전체	298	25.62(5.67)	12.79(4.95)	13.06(6.77)	14.72(6.50)	40.58(14.51)
	여아	미취학	108	27.55(4.41)	12.65(5.97)	15.20(7.06)	12.64(6.71)	40.49(16.73)
		초등저	109	25.13(5.39)	14.12(5.30)	16.64(6.54)	14.38(6.33)	45.14(14.54)
		초등고	106	25.24(6.10)	14.54(4.94)	14.29(6.50)	13.46(6.29)	42.29(13.89)
		전체	323	25.97(5.44)	13.76(5.46)	15.39(6.76)	13.50(6.46)	42.65(15.19)
	전체	미취학	209	27.27(5.15)	12.52(5.51)	15.09(7.18)	13.38(6.62)	40.99(16.04)
		초등저	223	25.29(5.51)	13.69(5.21)	14.57(6.68)	14.76(6.52)	43.02(14.73)
		초등고	189	24.79(5.72)	13.69(4.91)	13.02(6.56)	14.07(6.30)	40.78(13.68)
		전체	621	25.81(5.55)	13.30(5.24)	14.27(6.86)	14.09(6.50)	41.66(14.89)

〈표 2〉 시설보호 여부, 성별, 연령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삼원변량분석 결과

정서성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정	기쁨	시설보호여부	629.258	1	629.258	21.785***
		성별	35.112	1	35.112	1.216
		연령	408.868	2	204.434	7.078**
		시설보호여부×성별	92.473	1	92.473	3.201
		시설보호여부×연령	56.715	2	28.358	.982
		성별×연령	63.006	2	31.503	1.091
		시설보호여부×성별×연령	2.093	2	1.047	.036
		오차	17590.683	609	28.885	
부	슬픔	시설보호여부	1071.186	1	1071.186	42.243***
		성별	131.884	1	131.884	5.201*
		연령	69.692	2	34.846	1.374
		시설보호여부×성별	92.113	1	92.113	3.633
		시설보호여부×연령	40.578	2	20.289	.800
		성별×연령	94.714	2	47.357	1.868
		시설보호여부×성별×연령	1.602	2	.801	.032
		오차	15442.964	609	25.358	
	두려움	시설보호여부	1033.904	1	1033.904	24.285***
		성별	667.210	1	667.210	15.672***
		연령	858.620	2	429.310	10.085***
		시설보호여부×성별	222.786	1	222.786	5.233*
		시설보호여부×연령	260.217	2	130.108	3.056*
		성별×연령	586.696	2	293.348	6.890**
		시설보호여부×성별×연령	42.727	2	21.364	.502
		오차	25927.045	609	42.573	
	관노	시설보호여부	1852.026	1	1852.026	47.571***
		성별	283.055	1	283.055	7.271**
		연령	22.565	2	11.282	.290
		시설보호여부×성별	210.544	1	210.544	5.408*
		시설보호여부×연령	98.659	2	49.329	1.267
		성별×연령	54.885	2	27.443	.705
		시설보호여부×성별×연령	23.513	2	11.756	.302
		오차	23709.248	609	38.931	
전체	시설보호여부	11646.411	1	11646.411	58.031***	
	성별	419.850	1	419.850	2.092	
	연령	594.668	2	297.334	1.482	
	시설보호여부×성별	1523.629	1	1523.629	7.592**	
	시설보호여부×연령	368.298	2	184.149	.918	
	성별×연령	1469.769	2	734.885	3.662*	
	시설보호여부×성별×연령	106.995	2	53.497	.267	
	오차	122221.815	609	200.693		

\*p&lt;.05, \*\*p&lt;.01, \*\*\*p&lt;.001

<표 3> 아동의 정서성 단순 주효과 분석

구분	집단		사례수	M(SD)	t/F		
부정	시설보호	남아	133	14.81 (7.09)	-1.598		
		여아	141	16.24 (7.67)			
		일반	남아	165		11.65 (6.18)	-4.748***
			여아	182		14.73 (5.89)	
	두려움	시설보호	미취학	67	18.09 (8.45)	7.359**	
			초등저	119	15.57 (6.74)		
		일반	초등고	88	13.58 (6.92)		
			미취학	142	13.68 (6.02)		
			초등저	104	13.42 (6.46)		
			초등고	101	12.53 (6.22)		
	남아	미취학	초등저	101	14.97 (7.33)	7.071**	
			초등고	114	12.59 (6.22)		
			초등고	83	11.40 (6.30)		
		여아	미취학	108	15.20 (7.06)		
			초등저	109	16.64 (6.54)		
			초등고	106	14.29 (6.50)		
	분노	시설보호	남아	133	17.28 (6.75)	2.886**	
			여아	141	14.90 (6.88)		
일반		남아	165	12.67 (5.49)			
		여아	182	12.41 (5.92)			
전체	시설보호	남아	133	46.81(15.08)	.373		
		여아	141	46.09(16.78)			
	일반	남아	165	35.55(11.89)		-3.264**	
		여아	182	39.98(13.27)			
	미취학	남아	101	41.52(15.33)		.465	
		여아	108	40.49(16.73)			
	초등저	남아	114	41.00(14.68)			-2.113*
		여아	109	45.14(14.54)			
	초등고	남아	83	38.84(13.23)			-1.730
		여아	106	42.29(13.89)			

\*p<.05, \*\*p<.01, \*\*\*p<.001

가 나타난 반면( $t=-4.748, p<.001$ ) 연령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차는 나타났다( $F=7.359, p<.01$ ). 또한, 남아의 경우에는 연령차가 나타났으나( $F=7.071$ ) 여아의 경우에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노에 대한 정서성에서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성차가 나타난 반면( $t=2.886, p<.01$ ),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시설보호 여부, 성별, 연령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시설보호 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행동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 중 미성숙, 위축, 신체증상의 경우 시설보호 여부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보호 아동의 미성숙 행동문제 점수( $M=2.93, SD=2.57$ )가 일반 아동의 미성숙 행동문제 점수( $M=2.40, SD=2.08$ ) 보다 더 높았으며( $F=8.839, p<.01$ ), 시설보호 아동의 위축 행동문제 점수( $M=1.99, SD=2.24$ ) 역시 일반 아동( $M=1.52, SD=1.67$ )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6.922, p<.01$ ). 이와 달리, 신체증상의 경우에는 일반 아동의 점수( $M=1.97, SD=1.83$ )가 시설보호 아동의 점수( $M=1.28, SD=1.80$ )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F=18.450, p<.001$ ). 위축 행동문제의 경우에는 시설보호 여부와 함께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미취학 유아의 점수( $M=1.39, SD=1.66$ )가 초등학교 저학년( $M=1.91, SD=2.11$ ) 및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M=1.89, SD=2.01$ )의 점수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3.423, p<.05$ ).

다음으로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 전체 외현화 행동문

제와 공격 행동문제에서 시설보호 여부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전체 외현화 행동문제 점수(M=5.71, SD=5.03)와 공격 행동문제 점수(M=2.41, SD=2.66)가 일반 아동(M=4.28, SD=3.97; M=1.36, SD=1.90)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F=14.630, p<.001), 남아(M=5.48, SD=4.70; M=2.24, SD=2.51)가 여아(M=4.39, SD=4.29; M=1.43, SD=2.08)에 비해 전체 외현화 행동문제 점수와 공격 행동문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7.513, p<.01).

한편,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 중 미성숙 행동의 경우에는 시설보호 여부, 성별, 연령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변수들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t 검증을 통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표 6> 참조)에 의하면, 미성숙 행동문제에서 미취학 남아의 경우에는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t=2.075, p<.05), 미취학 여아의 경우에는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의 경우에는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t=2.151, p<.05), 초등학교 고학년 남아와 여아의 경우에는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아동의 행동문제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시설 보호 여부	성별	연령	N	행동문제							
				내면화					외현화		
				불안 M(SD)	미성숙 M(SD)	위축 M(SD)	신체 M(SD)	전체 M(SD)	과잉 M(SD)	공격 M(SD)	전체 M(SD)
시설 보호 아동	남아	미취학	31	3.19(2.87)	3.61(3.27)	1.55(2.50)	1.48(2.19)	9.84(9.07)	3.68(2.86)	2.26(2.31)	5.94(4.82)
		초등저	62	2.69(2.34)	2.52(2.39)	1.68(1.90)	.85(1.34)	7.74(6.52)	2.94(2.65)	2.97(2.95)	5.90(5.17)
		초등고	40	3.20(2.27)	3.10(2.44)	2.35(2.30)	1.80(1.83)	10.45(7.19)	3.48(2.78)	2.97(3.03)	6.45(5.56)
		전체	133	2.96(2.44)	2.95(2.65)	1.85(2.18)	1.29(1.76)	9.05(7.43)	3.27(2.74)	2.80(2.84)	6.08(5.18)
	여아	미취학	36	2.83(2.72)	3.03(2.66)	1.78(1.82)	1.25(1.70)	8.89(7.50)	3.64(2.63)	1.89(2.09)	5.53(4.38)
		초등저	57	3.18(2.29)	3.35(2.64)	2.44(2.46)	1.46(2.09)	10.42(7.49)	3.44(2.69)	2.25(2.63)	5.68(5.13)
		초등고	48	2.79(2.47)	2.33(2.15)	2.02(2.38)	1.08(1.67)	8.23(6.65)	3.30(2.76)	1.87(2.46)	4.88(4.97)
		전체	141	2.96(2.45)	2.92(2.51)	2.13(2.29)	1.28(1.85)	9.28(7.23)	3.34(2.69)	2.03(2.43)	5.47(4.88)
	전체	미취학	67	3.00(2.77)	3.30(2.95)	1.67(2.15)	1.36(1.93)	9.33(8.21)	3.66(2.72)	2.06(2.19)	5.72(4.56)
		초등저	119	2.92(2.32)	2.92(2.54)	2.04(2.21)	1.14(1.76)	9.03(7.10)	3.18(2.67)	2.62(2.81)	5.80(5.13)
		초등고	88	2.98(2.37)	2.68(2.30)	2.17(2.34)	1.41(1.77)	9.24(6.95)	3.22(2.76)	2.38(2.78)	5.59(5.28)
		전체	274	2.96(2.45)	2.93(2.57)	1.99(2.24)	1.28(1.80)	9.17(7.31)	3.31(2.71)	2.41(2.66)	5.71(5.03)
일반 아동	남아	미취학	70	2.44(2.20)	2.30(1.69)	1.16(1.44)	1.91(1.54)	7.81(5.60)	3.24(2.63)	1.89(2.19)	5.13(4.39)
		초등저	52	3.08(2.41)	2.79(2.15)	1.65(1.61)	1.87(1.84)	9.25(6.05)	3.38(2.77)	1.77(2.12)	5.15(4.32)
		초등고	43	2.49(1.97)	2.44(1.94)	1.56(1.52)	1.79(1.60)	8.28(5.02)	2.98(2.32)	1.63(1.96)	4.60(3.91)
		전체	165	2.65(2.22)	2.49(2.01)	1.38(1.52)	1.87(1.64)	8.39(5.61)	3.22(2.59)	1.78(2.10)	5.00(4.23)
	여아	미취학	72	2.82(1.94)	2.08(1.82)	1.35(1.29)	1.97(1.74)	8.22(4.84)	2.39(2.20)	.78(1.36)	3.17(3.22)
		초등저	52	2.81(2.51)	2.29(2.50)	2.00(2.32)	2.23(2.48)	9.33(8.64)	2.62(2.41)	1.13(1.76)	3.75(3.75)
		초등고	58	3.17(2.55)	2.64(2.15)	1.71(1.74)	2.03(1.80)	9.55(6.52)	3.03(2.58)	1.07(1.77)	4.10(3.97)
		전체	182	2.93(2.31)	2.32(2.14)	1.65(1.79)	2.07(1.99)	8.96(6.63)	2.66(2.39)	.97(1.61)	3.63(3.61)
	전체	미취학	142	2.63(2.07)	2.19(1.89)	1.25(1.37)	1.94(1.64)	8.02(5.22)	2.81(2.45)	1.32(1.89)	4.13(3.95)
		초등저	104	2.94(2.45)	2.54(2.33)	1.76(2.00)	2.05(2.18)	9.29(7.43)	3.00(2.61)	1.45(1.97)	4.45(4.09)
		초등고	101	2.88(2.33)	2.55(2.06)	1.64(1.64)	1.93(1.71)	9.01(5.93)	3.01(2.46)	1.33(1.86)	4.32(3.91)
		전체	347	2.80(2.27)	2.40(2.08)	1.52(1.67)	1.97(1.83)	8.69(6.16)	2.93(2.50)	1.36(1.90)	4.28(3.97)
전체	남아	미취학	101	2.67(2.44)	2.70(2.50)	1.28(1.83)	1.78(1.76)	8.44(6.87)	3.38(2.69)	2.00(2.22)	5.38(4.52)
		초등저	114	2.87(2.37)	2.64(2.27)	1.61(1.77)	1.32(1.66)	8.43(6.33)	3.14(2.70)	2.42(2.66)	5.56(4.80)
		초등고	83	2.83(2.13)	2.76(2.21)	1.94(1.97)	1.80(1.70)	9.33(6.22)	3.22(2.55)	2.28(2.61)	5.49(4.83)
		전체	298	2.79(2.32)	2.69(2.33)	1.59(1.86)	1.61(1.72)	8.68(6.48)	3.24(2.65)	2.24(2.51)	5.48(4.70)
	여아	미취학	108	2.82(2.22)	2.40(2.17)	1.49(1.49)	1.73(1.75)	8.44(5.84)	2.81(2.41)	1.15(1.71)	3.95(3.79)
		초등저	109	3.00(2.40)	2.84(2.62)	2.23(2.39)	1.83(2.30)	9.90(8.04)	3.05(2.58)	1.17(2.31)	4.76(4.61)
		초등고	106	3.00(2.51)	2.50(2.14)	1.85(2.05)	1.60(1.80)	8.95(6.58)	3.02(2.65)	1.43(2.14)	4.45(4.43)
		전체	323	2.94(2.37)	2.58(2.32)	1.86(2.03)	1.72(1.96)	9.10(6.89)	2.96(2.54)	1.43(2.08)	4.39(4.29)
	전체	미취학	209	2.75(2.32)	2.55(2.33)	1.39(1.66)	1.76(1.75)	8.44(6.34)	3.08(2.56)	1.56(2.02)	4.64(4.21)
		초등저	223	2.93(2.38)	2.74(2.44)	1.91(2.11)	1.57(2.01)	9.15(7.24)	3.09(2.64)	2.08(2.52)	5.17(4.71)
		초등고	189	2.93(2.35)	2.61(2.17)	1.89(2.01)	1.69(1.75)	9.12(6.41)	3.11(2.60)	1.80(2.39)	4.91(4.63)
		전체	621	2.87(2.35)	2.64(2.32)	1.73(1.95)	1.67(1.85)	8.90(6.69)	3.09(2.60)	1.82(2.33)	4.91(4.52)



<표 5> 시설보호 여부, 성별, 연령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삼원변량분석 결과

행동문제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미성숙	시설보호여부	46.890	1	46.890	8.839**	
	성별	4.365	1	4.365	.823	
	연령	1.769	2	.885	.167	
	시설보호여부×성별	5.115E-05	1	5.115E-05	.000	
	시설보호여부×연령	22.970	2	11.485	2.165	
	성별×연령	9.288	2	4.644	.875	
	시설보호여부×성별×연령	36.699	2	18.349	3.459*	
	오차	3230.607	609	5.305		
내면화	시설보호여부	25.834	1	25.834	6.922**	
	성별	8.892	1	8.892	2.383	
	연령	25.551	2	12.776	3.423*	
	시설보호여부×성별	.101	1	.010	.027	
	시설보호여부×연령	1.635	2	.818	.219	
	성별×연령	13.007	2	6.504	1.743	
	시설보호여부×성별×연령	3.714	2	1.857	.498	
	오차	2272.756	609	3.732		
신체 증상	시설보호여부	61.018	1	61.018	18.450***	
	성별	.410	1	.410	.124	
	연령	.619	2	.309	.094	
	시설보호여부×성별	4.187	1	4.187	1.266	
	시설보호여부×연령	4.973	2	2.486	.752	
	성별×연령	14.940	2	7.470	2.259	
	시설보호여부×성별×연령	9.035	2	4.517	1.366	
	오차	2014.158	609	3.307		
외현화	시설보호여부	143.330	1	143.330	28.481***	
	성별	81.829	1	81.829	16.260***	
	연령	10.652	2	5.326	1.058	
	시설보호여부×성별	4.922E-02	1	4.922E-02	.010	
	시설보호여부×연령	4.623	2	2.312	.459	
	성별×연령	.579	2	.289	.057	
	시설보호여부×성별×연령	9.662	2	4.831	.960	
	오차	3064.802	609	5.033		
	전체	시설보호여부	290.729	1	290.729	14.630***
		성별	149.301	1	149.301	7.513**
		연령	3.480	2	1.740	.088
		시설보호여부×성별	11.241	1	11.241	.566
		시설보호여부×연령	2.106	2	1.053	.053
		성별×연령	3.587	2	1.794	.090
시설보호여부×성별×연령		47.510	2	23.755	1.195	
오차		12101.749	609	19.872		

\*p<.05, \*\*p<.01, \*\*\*p<.001

〈표 6〉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 단순 주효과 분석

구분	집단		사례수	M(SD)	t		
미성숙	미취학	남아	시설보호	31	3.61(3.27)	2.075*	
			일반	70	2.30(1.69)		
		여아	시설보호	36	3.03(2.66)		2.169
			일반	72	2.08(1.82)		
	초등저	남아	시설보호	62	2.52(2.39)	- .635	
			일반	52	2.79(2.15)		
		여아	시설보호	57	3.35(2.64)		2.151*
			일반	52	2.29(2.50)		
	초등고	남아	시설보호	40	3.10(2.44)	1.365	
			일반	43	2.44(1.94)		
		여아	시설보호	48	2.33(2.15)		-.727
			일반	58	2.64(2.15)		

\*p<.05

### 3. 아동의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관계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성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설보호 아동의 긍정적 정서성(기쁨)은 전체 내면화 행동문제( $r=-.180$ ), 불안( $r=-1.77$ ), 미성숙( $r=-.099$ ), 위축( $r=-.222$ )의 하위 행동문제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부정적 정서성은 내면화( $r=.399$ ) 및 외현화( $r=.236$ ) 행동문제, 그리고 모든 하위영역( $r=.383, .317, .317, .224, .260, .169$ )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아동의 정서성과 행동문제간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274명의 시설보호 아동과 347명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아

동의 정서성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연구대상 아동의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긍정적 정서성 수준은 일반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의 긍정적 정서성 수준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쁨에 대한 정서조망 능력이 어린 시기에 발달하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 아동이 다른 정서영역에 비해 기쁨에 대한 정서조망에서 일반 아동보다 크게 낮은 점수를 보인 선행연구(권세은, 이순형, 2002)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은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시설보호 여부에 따라 미취학 유아 및 초등학생들이 보이는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정서성 중 슬픔, 두려움, 분노의 하위 정서성 영역에서도 모두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성 수준이 일반아동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서 시설에 거주하는지,

〈표 7〉 아동의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상관관계

구분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부정적 정서성
불안	-.177**	.280**	.338**	.295**	.383**
미성숙	-.099*	.147**	.263**	.331**	.317**
위축	-.222**	.283**	.268**	.216**	.317**
신체증상	-.070	.176**	.214**	.146**	.224**
과잉	.053	.133**	.098*	.385**	.260**
공격	-.008	.064	-.007	.344**	.169**
내면화	-.180**	.280**	.347**	.321**	.399**
외현화	.027	.109**	.053	.398**	.236**

\*p<.05, \*\*p<.01

아니면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는지에 따라 이들이 보이는 정서성 수준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 지식 수준이 일반 아동의 정서 지식 수준보다 뒤떨어진다는 선행연구결과(이강이, 성미영, 2003)와 일맥상통하며, 이러한 결과는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입소사유에 기인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사망과 같은 양육자의 부재로 인해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의 입소사유와는 달리, 최근에는 부모의 이혼, 별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인해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아동이 급증하였다. 이처럼 가족해체를 경험한 시설보호 유아의 경우 시설 입소 이전에 가족간의 불화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가족원간에 표출된 분노와 같은 정서가 아동의 긍정적 정서성 발달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Denham et al., 1994; Dunn & Brown, 1994; Garner et al, 1994). 또한, 가족해체를 경험한 유아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유아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지원망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 또는 심각한 부부 갈등을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자녀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무관심하게 반응하거나 슬픔이나 분노,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긍정적 정서 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정서표현에 노출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일반 아동에 비해 긍정적 정서성은 낮고 부정적 정서성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시설보호 아동이 부모의 개별 양육을 받는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성과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성을 보이는 원인으로 시설에서의 집단 양육환경에 따른 개별적인 돌봄과 양육자와 유아간의 상호성 부족을 예상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 아동의 긍정적 정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안정적 양육환경을 구축하고, 긍정적 정서발달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부정적 정서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미취학 유아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 아동에 비해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두려움에 대한 정서성은 미취학 유아의 두려움 수준이 초등학교 아동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정서성의 차이는 슬픔, 두려움, 분노의 부정적 정서성 모두에서 나타났는데 슬픔에 대한 정서성에서는 여아가 높게 나타났고, 두려움에 대한 정서성에서는 일반 아동의 경우에만 여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분노에 대한 정서성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에만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단순히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단일 변인에 의한 차이 보다는 이러한 변인과 시설보호 여부간의 상호관련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적으로 두려움의 정서는 여성적 성향으로, 분노의 정서는 남성적 성향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두려움의 정서에서 일반 아동과 달리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가족의 해체와 같은 부정적 사건의 경험과 시설에서의 거주 경험이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서를 성별에 관계없이 유발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시설보호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의 양상은 일반 아동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공격행동과 같은 외면화 행동문제의 경우 시설보호 아동의 점수가 일반아동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설보호 아동이 보이는 사회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결과(노봉린, 1997; 박영준, 1996; 신소희, 1984; 이종원, 1988)를 지지한다. 이와 함께 시설보호 아동이 보이는 미성숙이나 위축 등의 내면화 행동문제 역시 일반 아동에 비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보호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자기주장성 및 자아 통제에서 낮은 수준의 점수를 보이고(권세은, 이순형, 2002), 의사소통에 요구되는 언어적 이해 수준이 낮아서 위축이나 불안, 공격 등의 행동문제를 더 자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이강이 외, 2002)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미성숙 행동문제의 경우에는 미취학 시설보호 남아와 미취학 일반 남아간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보호 여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일반 여아간에만 점수 차이가 나타나서 시설보호 여부, 성별,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 중 신체증상의 경우에는 예상과 달리 일반 아동이 시설보호 아동 보다 부정적 신체증상의 징조가 더 자주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써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후속연구를 통해 수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남아의 경우 시설보호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여아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 성차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는 공격성에 존재하는 성차의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되는 결과로써, 남아가 여아에 비해 언어적 및 신체적 공격성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 중 위축 행동의 경우에만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서 미취학 유아의 위축 행동 수준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 아동의 위축 행동 수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축행동이 초등학교생의 인지 및 사회역량 지각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서선주, 1999)에 의해 설명해 볼 수 있다. 아동이 자신의 인지적

능력, 사회적 역량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할 때 자신 있게 행동하고 다른 아이들과 자발적으로 잘 어울리며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반면, 자신이 인지적으로 유능하지 못하고 주변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능숙하게 상호작용하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조바심을 내거나 걱정을 많이 하고 신경이 예민하며 기분이 자주 바뀌는 등의 불안정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공식적인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될 경우 아동이 위축된 행동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은 미취학 유아 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위축행동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아동의 정서성과 행동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긍정적 정서성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적 관계를, 그리고 부정적 정서성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긍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내면화 행동문제 정도는 낮았으며,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점수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본 Rothbart와 동료들(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정서성의 경우 공격성이나 죄의식 등과 정적인 관련을 보이고,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충동적으로 행동하며(Rothbart et al., 1994), 일상적 또래관계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Fabes et al., 1999).

또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작용하는 유아의 정서 지식 발달 수준은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서, 유아의 정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강제적 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친사회적 전략 사용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강이, 성미영, 2003), 이러한 선행연구 역시 정서 관련 변인과 사회적 기술 사용간의 관련성을 보여줌으로써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뒷받침해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시설보호 여부, 성별, 연령에 따라 아동의 정서성과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긍정적 정서성과 행동문제간에는 부적 관계가, 그리고 부정적 정서성과 행동문제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지식이나 정서 조망 능력 등을 살펴본 연구는 일부 수행되었으나, 이들의 정서성에 대해 접근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설보호 유아와 일반 유아를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집단을 연령별로 표집하였으나, 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표본의 수가

크지 않아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더 많은 수의 단일 연령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정서성 발달과 행동문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이들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변화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시설보호 아동의 긍정적 정서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시설보호 아동, 정서성, 행동문제

## 참 고 문 헌

- 권세은, 이순형 (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능력의 비교. *아동학회지*, 23(2), 107-120.
- 권연희, 박경자 (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아동학회지*, 24(3), 27-44.
- 노봉련 (1997) 시설아동의 학업부진의 원인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1998) 영아기 정서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3세 아동의 행동억제. *대한가정학회지*, 36(4), 19-33.
- 박성은, 박성연(2001)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남녀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29-47.
- 박영준 (1996) 육아시설아동의 생활환경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선주 (1999)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3), 97-106.
- 성미영, 이순형, 이강이 (2001)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초기 학교적응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9(1), 53-64.
- 신소희 (1984) 시설아동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고아원의 남녀 중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강이, 성미영 (2003) 유아의 정서 지식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시설보호 유아와 일반 유아의 비교-. *아동학회지*, 24(1), 33-45.
- 이강이, 성미영, 이순형 (2002)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0(2), 57-66.
- 이순형, 이강이, 성미영 (2000)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입소원인 자각에 따른 초기 학교적응의 차이.

- 대한가정학회지, 38(11), 181-191.
- 이순형, 이강이, 성미영(2001)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9(4), 79-89.
- 이종원 (1988) 육아시설아동의 성격특성 분석을 통한 생활지도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Achenbach, T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Ackerman, BP, Izard, CE, Schoff, K, Youngstrom, EA, Kogos, J (1999) Contextual risk, caregiver emotionality, and the problem behaviors of six- and seven-year-old children from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6), 1415-1427.
- Arsenio, WF, Cooperman, S, Lover, A (2000) Affective predictors of preschoolers' aggression and peer accepta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38-448.
- Denham, SA, Zoller, D, Couchoud, E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28-936.
- Dunn, J, Brown, J (1994) Affect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137.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L, Fabes, RA, Shepard, SA, Reiser, M, Murphy, BC, Losoya, SH, Guthrie, I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 Fabes, R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Poulin, R, Shepard, S, Friedman, J (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70(2), 432-442.
- Garner, PW, Jones, DC, Miner, J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Park, S, Belsky, J, Putnam, S,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18-227.
- Rothbart, MK, Ahadi, SA, Hershey, K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39.

(2005. 10. 10 접수; 2006. 01. 30 채택)